

문화

29일 양림동·사직공원 일원서 다양한 문화행사



예술과 자연 고스란히... 양림동은 '문·화·동'



29일 '굿모닝 양림'이 열릴 우일선 선교사 사택의 모습. 이날은 사택 뜰에 무대가 설치되고 클래식, 가요,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공연이 열린다.

양림동은 광주의 숨겨진 속살 같은 곳이다. 100년이 넘는 오래된 선교사 사택이며, 세월의 더께를 얹은 한옥, 많은 이야기가 깃들여 있는 좁은 골목길에 가본 이들은 그 매력에 빠져든다. 한번이라도 느긋하게 양림동 길과 인근 사직공원을 거닐어 본 이라면 자꾸 이곳에 찾아가고 싶어 하지만 그 매력을 아는 사람들은

해바라기·시인 박남준 등 참여 시민과 추억만들기

과거 현재 공존... 기독교병원·우일선선교사 사택 옛 사진전

오웬기념각에선 '양림근대건축물 이야기 여행' 떠나

그리 많지 않다.

그래서 광주시 남구청이 '굿모닝 양림 2011' 행사를 통해 광주 시민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다. 오는 29일 오전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양림동과 사직공원일원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 행사는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다.

행사의 총감독을 맡은 김규량씨는 "양림동은 문화예술, 역사와 자연이 소통하고 시간의 축적이 고스란히 전해져 내려오는 보물상자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가을단풍이 아름다운 우일선 선교사 사택, 담장이 넝쿨이 세월을 이야기하는 오웬기념각, 무등산이 한눈에 보이는 호신대의 카페 터

브라운, 그리고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는 사직공원 숲속과 양림동 골목길이 모두 축제의 현장이다. 행사 로고 '굿모닝 양림'은 양림동의 상징인 시 기념물(17호) 호랑가시나무를 캘리그래피와 합성해 만들었고, 가을날의 추억을 담은 '양림엽서'도 제작해 배포한다. 오후 5시30분~7시까지 우일선

피날레 무대는 가수 해바라기가 장식한다. 전시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양림동에 살았던 '가을의 기도' 시인 김현숙과 이수복, 드라마 작가 조소혜의 작품을 살펴보는 '문학인 아카이브'전이 호신대 티브라운 카페에서 열리며 기독교병원, 우일선선교사 사택 등 양림동의 옛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양림의 100년사' 전도 진행된다.

또 양림동에 작업실을 마련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던 배동신·황영성·이강하·한희원 4명의 작가들은 호남대학교 티브라운 8층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참여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어느 축제보다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 직접 참여하면 근사한 보물을 얻는 셈이다.

고재중·박남준·이원규씨 등 유명 시인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숲속책방'에서는 책나눔, 책갈피 만들기 등의 행사가 펼쳐진다. 화가들이 방문객의 모습을 스케치해주는 '숲속 화가들', 따뜻한 차 한잔 마실수 있는 '숲속 카페' 등도 놓치지 아까운 프로그램이다.

또 양림동 골목길에서는 골목길 사진관과 미술관 등의 행사가 열리고 문화해설가와 함께 양림역사 문화탐방도 떠날 수 있다. 또 오웬기념각에서는 한규부 교수가 '양림근대건축물의 이야기 여행'을 진행한다. www.goodmorningyangrim.com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국제영화제 오늘 개막

31일까지 메가박스 M관 DJ노벨평화영화상 시상



김효진 김강우

2011 광주국제영화제가 27일 7시 메가박스 M관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미소 짓는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영화제에서는 올해 베니스영화제 은사자상 수상작인 개막작 '인산인해' 등 14개국 52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 신설된 김대중 노벨평화영화상에 대한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어서 눈길을 모은다.

이날 개막식에는 '인산인해'의 차이성 감독과 주연배우 타오 훙을 비롯해 영화배우 김효진과 김강우, '무산일기'의 박정범 감독 등 영화인들이 함께하며 노벨평화영화상 시상식을 위해 이희호 여사와 강은태 광주시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참석한다. 김대중노벨평화영화상 수상자인 이란의 자파르 파나히 감독은 가택연금 상태로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주최측은 개막식 참석자들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와 상금을 따로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후 2시에는 영화제 사무국에서 '광주국제영화제 자원봉사 발대식'도 열린다.

영화제 부대행사로는 이정국 감독의 생활연기 워크숍(28~30일 광주 시청자 미디어센터), 김홍준 감독(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을 초청해 진행하는 '씨네토크-지역 영화산업의 가치 조명과 활용 방안'(29일 오후 2시 광주국제영화제 영상카페)이 진행된다. www.giff.org. 문의 062-228-99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그녀들의 '꿈꾸는 일탈'

광주·전남여성작가회,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이 지역 여성 작가들의 모임인 광주·전남여성작가회(회장 이정주)가 27일~11월 2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제27회 정기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강숙자·고정희·김주희·김주희·남해영·박유자·서경란·선명주·소민경·오혜경·이미경·전현숙·정순이·정정인·주미희·탁혜성·한경희·허정씨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꿈꾸는 일탈'을 주제로 개성 넘치는 작품 세계를 펼쳐보인다. 오혜경씨는 서로 몸을 부비며 다양

한 표정을 연출하고 있는 만원 버스속 풍경과 아파트 창문을 대비시킨 '외톨이'를 선보이고, 이혜경씨는 안정감 드는 구도도 돋보인 '목욕수 사랑'을 전시한다.

지난 1982년 창립한 광주·전남여성작가회는 그동안 20여 차례 정기전과 이웃사랑전 등의 기획전전을 열었다. 또 최근에는 목포, 순천, 광양, 여수 지역 작가들도 이 모임에 참여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222-8053.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정주 작 '메디타션 이야기'

"10월의 마지막 밤에 만나요"

도시철도공사·북구청 등 도심 곳곳서 콘서트 개최

"10월의 마지막 밤, 흥겨운 공연과 함께 낭만을 즐기세요."

10월의 마지막 밤에 광주지역에서 다채로운 공연이 열린다.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31일 오후 4시 삼무 시민공원 내 세계광역

스포츠제관 영상관에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가을 맞이 콘서트'를 연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이번 공연에는 그룹 '아포카토'가 나와 가요와 재즈 음악을 들려준다. 또 공연 후 정품 추첨 이벤트도 곁들

여진다. 문의 062-372-0550.

광주도시철도공사도 이날 오후 7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공연장에서 지하철 자원봉사 예술가들의 특별 공연인 '시민초청 가을밤 향연'을 펼친다. 문의 062-604-8163.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시민초청 가을밤 향연'에서는 한 해 동안 지하철도예술무대에서 전문가 못지않은 솜씨를 펼친 17개 단체 100여명의 자원봉사 공연자들이 참여한다. '한국사이버문화인협회'의 시낭송과 '선율6060'이 색소폰 선율을 들려준다.

또 '놀이패 만월'의 신명나는 사물놀이와 '하남농협주부대학'의 전통무용, 빛고을색소폰연주단의 색소폰 합주, '수령댄스협회'의 밸리댄스가 이어진다. 문의 062-604-8163.

북구청도 이날 오후 7시 30분 북구 청소년수련관 1층 공연장에서 '북구민과 함께하는 10월의 마지막 밤 연주회'를 연다. '문화신포니에타 앙상블'이 '신세계 교향곡' '집시의 세레나데' '광대들의 춤' 등을 연주한다. 또 바리톤 김계선, 소프라노 노연선, 테너 김백호 등이 출연해 '우정의 노래', '그리운 금강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등을 들려준다. 이 밖에 가야금 연주자 김지혜씨는 '달빛 밝은 이밤에'를 연주한다. 문의 062-410-842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Geumsoo Jang restaurant. Features text: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25,000원부터',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Advertisement for AIELLISIA restaurant. Features text: '아이에ल्ली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Advertisement for U-Square Sauna. Features text: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